공들여 펴낸 역저에서 느끼는 몇몇 아쉬움

김유동 지음 「아도르노思想」을 읽고

민형원
덕성여대 교수·철학

우선 저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의 작업의 출간은 시의에 맞는 것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까닭은 우리 학계에서의 아도르노 수용사에도 또 다른 한 장이 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의 아도르노 수용사에서도 60년대 후반의 독일의 학생운동이 아도르노의 이론을 초기에 좁은 지식인들 중심의 대학이라는 폐쇄된 공간을 넘어서 보다 광범한 수용자층에게 비판이론 및 아도르노의 이론을 소개, 보급하는데 긍정적인 계기가 되지만, 곧이어 교조적 좌파 이데올로기 편향성과 과격한 행동주의에 의해서 더 이상 학문적(?) 수용과 합리적 토론은 불가능하게 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질풍노도 시대의 종언과 더불어 빠르게는 70년대 후반 아주 늦게 잡아도 1983년 프랑크푸르트와 함부르크에서 각각 3일에 걸쳐 열렸던 아도르노 학술회의 이후 우리는 아도르노 수용의 르네상스라고 평할 수 있는 폭넓은 연구들을 접하게 된다. 물론 이제까지 아도르노에 대한 연구업적들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양에 있어서도, 또한 다루고 있는 문제의 폭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된(주로 문학과 일반예술론에 있어서의 특수한 문제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들이 주종을 이루어온 것은 부끄럽지만 엄연히 인정해야 할 우리 학계의 현실이다.

때문에 단순히 문학이나 예술론의 어떤 특수한 문제만을 다루는 논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등한시되어 온 아도르노의 역사철학과 사회이론, 인식론까지를 포괄적으로 소개하여줄 수 있는 소개서가 시급히 요청되어온 것이 우리의 실정이며, 그리고 실은 이러한 아도르노의 이론적 국면을 고찰하지 않고서는 아도르노의 문학이론과 미학에 대한 올바른 평가란 불가능하다. 이 책은 이러한 욕구를 우선 충족시켜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이러한 저자의 작업에 대한 깊은 공감과 경의에도 불구하고, 서평자가 발견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몇가지 문제점과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족적 설명이되리라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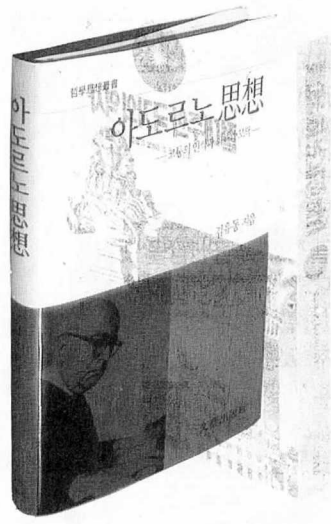
"모든 실천을 다 포기한 건 아니다"

첫째, 이 책의 구성상의 문제로 제4장과 제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상의 위기와 구제라는 테마를 단순히 예술영역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말고, 아도르노 역시도 통일성의 사고와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교환원리에 의해서 조직되고 있는 사회의 영역에서도, 또한 문화산업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기만의식과의 관계에서도, 가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듯이 아도르노의 인식론과 사회이론을 가상의 비판작업으로서 일종의 이데올로기비판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아도르노 이론전체의 일관적 파악을 위해서 낫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아도르노의 이론적 국면을 고찰하지 않고서는 아도르노의 문학이론과 미학에 대한 올바른 평가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학계의 아도르노 수용은 그의 역사철학과 사회이론, 인식론까지를 포괄하지는 못해 왔다. 이 책은 그같은 미흡함을 채워 준다는 점에서 일단 높이 평가된다.

둘째, 아도르노의 실천의 유보의 입장을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전면적인 실천의 포기로 해석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물론 필자 역시도 이론을 실천의 천한 종년으로 도구화하려는 어떠한 유형의 과격하고 성급한 행동주의에 대한 아도르노의 거부가 정당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곧 아도르노가 어떠한 실천도 거부, 포기했다고 이해하는 저자의 해석에 서평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본서 77-83쪽). 아도르노는 자신의 사유행위를 실천적 폭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숨돌리기(Atom-pause)로 이해했다. 때문에 무모한 행동주의에 대한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능한 실천의 길의 모색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도르노는 비판이론이 제기했던 고전적인 실천에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는 끝내 예술행위 이외에는 가능한 역사내재적 해방적 실천의 대안과 지평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셋째, 이와 관계된 문제로서 아도르노가 대안의 제시에 실패한 근본적 이유는 역사를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 추진된 보편적 물화의 과정으로서만 단선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개진되고 있는 역사철학적 패러다임이 갖는 이론적 취약성 및 공백에 있다. 때문에 아도르노는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 삼켜지지 않은, 그리고 동시에 정치적으로 조직화될 수 있는 새로운 합리성의 형식을-아도르노의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는 합리성의 형식은 미적 합리성으로서 사회적으로 조직화될 수 없는 개인의 미적 경험의 영역에서만 나타난다-제시할 수 없었다. 이에 반해서 하버마스는 이러한 물화과정으로서의 문명사를 관통하고 있는 다른 합리성의 차원을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서 재구성해 냄으로써, 아도르노의 지나치게 단순화된 역사철학적 틀을 수정함으로서, 아도르노로서는 유보할 수밖에 없었던 비판이론이 제기해 왔던 고전적인 실천에의 요구를 재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하버마스에 의한 아도르노 역사철학의 패러다임의 변경의 필연성에 대해서는, 하버마스의 이론에 대한 여러가지의 상이한 평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때문에 아도르노의 이름으로부터 실천에의 새로운 지평이 제시될 수 없는 한, 하버마스의 이론에 대한 저자의 의견은 현재의 이론의 수준에서 본다면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된다(본서 73, 134-5쪽)



넷째, 저자는 미메시스 Mimesis개념과 미미크리 Mimikry개념을 전혀 질적인 차이를 갖지 않는 개념처럼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도르노는 미메시스 개념은 의식적으로 연출되는 대상과의 동화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반면 미미크리는 (위협적) 대상에의 전-의식적인, 본능적인 반응으로서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대상과의 동화(보호색)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본서 44쪽 제1-2행 참조).

다섯째, 제2의 자연 die Zweite Natur이란 개념은 헤겔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의미를 획득한 이후, 이어 마르크스, 벤야민, 루카치에 의해서 거듭 계승 발전됨으로써 사회 및 문화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아도르노의 이 개념의 수용이나 사용 역시도 이들과의 복잡한 연관관계에서만 정당하게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저자의 경우 해당되는 구절에서(본서 60쪽 제8-9행) 이 개념을 아도르노가 마치 전적으로 루카치로부터만 수용하고 있는듯한 어감을 주거나, 읽기에 따라서는 심지어 이 용어 자체가 루카치에 의해 철학적 용어로 최초로 등장해 온 것 같은 어감을 주기에, 만일 이러한 오해가 단순히 문장의 잘못된 표현에서 비롯했다면, 이러한 필요없는 오해를 피할 수 있게 됐으면 한다.

논리적 긴장 완화시키는 에세이식 집필

여섯째, 후기의 입장만을 중심으로, 생산력의 대상으로서 왜소화된 자연관만이 마르크스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저자는 서술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되는 다른 자연관을 보여주는 입장이 엄연히 마르크스의 초기저작 「경제-철학수고」 가운데 있음도 분명히 언급돼야 할 것 같다. 이곳에서는 인간의 부활은 자연의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 매우 분명히 언급되고 있다.

일곱째, 부정변증법의 반체계적 성격과의 관계에서, 아도르노는 체계의 정신 esprit des system은 부인했으나 체계적 정신 esprit systematique은 오히려 체계의 정신을 부정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더욱 철저히 요구했음을 분명히 해주었으면 싶다(본서 116쪽 이하).

이 문제와의 관계에서 끝으로 부언해두고 싶은 것은 논리 전개의 밀도와 템포를 높이는 데 있어서 저자가 요구했던 좀더 많은 자유, 즉 아도르노식의 에세이적 집필방식은 물론 표현력의 증가를 가져왔을지는 모르나, 그 대신 현저히 논리적 긴장을 완화시키거나, 정지시킬 위험도 또한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